

이슈브리프 18-48

# 미·중 무역전쟁의 배경과 시사점

ISSUE  
BRIEF

2018

10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 미·중 무역전쟁의 배경과 시사점

박병광 (대외전략연구실)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금년 4월 초 미국정부가 500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방침 발표 이후 양국 간에 본격화된 무역전쟁은 타협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기존에 확정된 1000억 달러(미국 500억 달러·중국 500억 달러)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9월에도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발표한 뒤 양국 간 상호 관세 부과 대상은 3,600억 달러(약 404조) 규모로 늘어난 상황이다.

## 트럼프는 왜 중국에 무역전쟁을 선포했나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최대의 교역 대상국으로서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역전쟁은 승자독식의 제로섬(zero sum) 게임이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물고 물리는(dog eat dog) 게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전통적 무역전쟁은 타협의 시점이 늦어질수록 모두가 패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전혀 양보할 기색 없이 중국을 몰아붙이며 무역전쟁에 올인(all in)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거론되는 것은 대중국 무역적자 누적과 그에 따른 불만이다. 미국은 그 동안 중국에 대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해 왔다. 미국 상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7년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304억 달러인 반면 대중국 수입액은 5,056억 달러로 한 해 동안에만 3,75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일방적인 무역흑자를 내면서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주도하는 미중 무역전쟁의 실체는 첨단기술 선점목표로 하는 ‘기술전쟁’이라고 보아야 한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의 강요 및 절취의혹 그리고 중국시장접근의 제약 등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특히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미국의 대표적 IT기업들은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이전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기감과 대책 수립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전쟁 표적은 첨단기술에 쏠려 있으며,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가 과녁의 정중앙에 놓여 있다.<sup>1)</sup>

더욱이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이 심어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스파이 칩(spy chip)’ 사건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주요 통신사와 대기업의 데이터센터 서버에서 중국정부의 감시용으로 보이는 스파이 칩이 발견된 것이다. 스파이 칩은 중국이 미국기업들의 지적재산권과 거래기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스파이 칩 사건은 미중 무역전쟁에 있어서 중국정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으며 트럼프에게 또 하나의 대중국 압박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

## 미중 무역전쟁의 실체는 하이테크 기술전쟁

본래 무역전쟁의 목표는 무역수지 개선인데 무역전쟁을 일으킨 미국은 이미 1970년대 초반부터 줄곧 무역수지 적자를 쌓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미국 우선주의’를 외쳐도 미국의 무역수지는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은 무역전쟁이란 이름아래 턱밑까지 추격한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 미래의 기술패권과 4차 산업혁명의 생태계를 장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 무역전쟁에서는 서로가 패자일 수 있지만 첨단기술 경쟁력을 다루는 ‘하이테크 전쟁’에서는 기술을 선점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중국제조 2025’란 중국이 제조업 능력 전반을 발전시키고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수립한 종합적 산업정책으로 2015년 3월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공작보고 연설에서 처음 밝힌 뒤 그해 5월 국무원에서 이를 확정 발표했다.

무역전쟁은 미중 양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무역전쟁의 주도권은 미국의 손안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국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수입액의 2분의 1에 불과하며 양국이 동일한 규모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이 불리하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으로 경상수지가 줄어들면 중국경제는 침체될 수밖에 없으며 제조업 및 핵심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의 대미 의존도가 높아져서 무역전쟁에 불리한 구조이다. 중국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인터넷 검열로 중국에 대한 피해 예상 기사를 삭제하고 있다. 또한 CCTV와 環球時報, 新華網 등 관영언론을 통해 경제적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기업과 언론의 동요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 미중 무역전쟁으로부터 발견되는 시사점

우리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미중 무역전쟁은 트럼프 개인의 돌출행동이나 정치적 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의 국가이익과 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당 인사들조차도 무역전쟁에 동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공화·민주 양당이 대중국 정책의 큰 흐름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에게 있어서 더 이상 ‘부상하는(emerging) 위협’이 아닌 ‘실제적 위협’으로 각인되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 이제 국제질서는 ‘부상하는(rising) 중국’에서 ‘도전하는(erupting) 중국’의 시대로 전환된 것이다. 때문에 트럼프가 중국 상공에 떠 있던 2,000억 달러의 관세폭탄 투하버튼을 눌러도 미국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지 않은 것이다.

둘째, 미중 무역전쟁에서 비록 중국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무역전쟁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내구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시진핑(習近平)은 무역전쟁 이후 핵심기술 독자개발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은 지난 4월 우한(武漢)의 광케이블 기업을 시찰하면서 “핵심기술, 관건기술은 반드시 스스로 일궈야 한다”고 했다. 최근에는 헤이룽장(黑龍江)성의 국유기업을 방문하면서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중국을 자력갱생의 길로 몰고 있지만 나쁘지 않다”며 “중국은 결국 스스로 의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의 주장은 대중의 확신을 고양하기 위한 정치적 맹세일 뿐 아니라 무역전쟁의 파고를 헤치고 언젠가 ‘세계 일등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셋째,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히 양국 간의 갈등을 넘어 전 세계 경제 질서에도 상당한 파급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관세부과는 중국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전통적 동맹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중 무역전쟁은 오랫동안 자유시장경제를 중심으로 유지되어 오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한국은 자본주의의 세계화로 대변되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가장 큰 수혜국이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와 외교에도 불확실성을 드리운다. 더욱이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굴복시키는 데 전략적 목표를 두고 있다면 무역전쟁은 향후 격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중 무역전쟁의 함의에 주목하면서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고래싸움의 배경과 목적을 이해하고 그것에서 발견되는 틈새를 활용하여 생존공간을 확장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